

자연순환축산 선도기업 '(주)와이엠아이'



▲ 충남 아산에 위치한 (주)와이엠아이 공장 및 본사 전경



▲ 문성호 대표이사

AI 등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폐사축 발생, 계분으로인한 악취 발생 등 민원문제로 국내 축산환경은 점점 어려움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사체는 우수한 비료와 사료, 계분은 양질의 퇴비로 활용이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더 육 이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호에는 수직형발효계분처리기와 다용도 동물사체 및 오파란처리기로 친환경, 환경순화축산을 선도 해 가는 (주)와이엠아이(대표이사 문성호)를 소개코자 한다.

자연순환축산에 앞장

축산의 환경순화, 자연으로의 환원, 인간과의 조화를 경영철학으로 축산과 함께 발전해온 (주)와이엠아이는 약 30년간 환경을 위한 축산 기계를 개발 및 제조, 관리해 오고 있다. (주)와이엠아이는 지난 1987년 예명공업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주)예명인더스트리로 법인을 전환하였다. 또한, 10여년간 폐기물이용 발효기, 동물사체처리기 등 발명 및 특허출원으로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몇해 전부터는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상호를 (주)와이엠아이로 변경하고 친환경축산기자재 선도기업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문성호 대표이사는 “최근 AI 등으로 살처분 가축 처리와 악취 문제 등으로 축산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안 좋아지고 있다. 사료첨가제, 기자재, 농장가꾸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농장에서 꼭 필요한 기자재를 통해 농장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싶었다. 쉽지 않지만 차별화된 앞선 기술과 품질로 국내 축산업이 건강한 축산, 친환경 축산이라는 이미지를 갖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술력 인정받고 중국 시장 진출 쾌거

작년 11월 (주)와이엠아이는 중국 중시목업과학축산 유한회사와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수년 전부터 (주)와이엠아이 제품에 관심을 보였던 중국 중시목업과학축산 유한회사가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냈고 양사가 설명회를 각각 갖고 세부사항을 논의 한 끝에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중국 중



▲ 2015년 11월 17일 (주)와이엠아이는 중국 중시목업과학축산 유한회사와 MOU체결식이 있었다.

시목업과학축산 유한회사는 약 1,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중국내 3위의 축산기자재 업체이다. 이번 수출체결로 (주)와이엠아이에서 제품을 제조 및 생산하고 중국 중시목업과학축산 유한회사는 현지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수출 1차년도에 수직형발효건조기(80형) 10개, 동물사체처리기(1톤) 30개, 동물사체처리기(3톤) 10개가 수출될 예정이며 사업진행에 따라 현지 합자회사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따라 앞으로 수출량은 더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9일에는 본회 정기총회에서 양계산업 발전에 공로한 점을 인정받아 대한양계 협회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다용도 동물사체처리기

농장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폐사가 일어나 폐사축을 처리하는 일이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다. (주)와이엠아이는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다용도 동물사체처리기(450L, 600L)를 개발하였다. 투입구에 사체를 넣으면 자동분쇄과정을



▲ 다용도 동물사체처리기

등 재활용 목적에 맞는 부자재를 넣고 약 12~13시간 발효 및 건조를 하면 사료나 퇴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온도조절기와 타이머 등이 있어 농장 운영에 따라 조절하며 사용하면 되고 전기 사용량도 적어 유지비 또한 걱정이 없다. 특히 할 점은 동물사체처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파란처리, 사료배합기, 약품배합기 등으로 사용이 가능해 기계 한 대로 4가지 기능을 맛 볼 수 있다. 소재는 암모니아가스와 열에 강한 스텐레스 3중으로 되어 있어 내구성



▲ 동물사체처리 과정

거쳐 발효
기 안으로
이동한다.
이 때, 미
강, 톱밥

이 강하며 각각 용도에 맞게 사용 후 내부를 빗
자루로 쓸기만 하면 깨끗해지고 응출수 발생이
없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7일이면 계분이 고품질 비료로

폐사축처리와 함께 양계장에서 계분처리는 많은 어려움과 함께 민원을 야기 한다. 양계농가의 골칫덩어리인 계분을 효과적으로 퇴비화 시켜 재활용할 수 있게 (주)와이엠아이는 '바이오 콤포스트(Bio-Compost)'를 내세워 농가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바이오 콤포스트'는 쉽게 생각하면 큰 믹서기를 생각하면 된다. YMC-77형과 YMC-66형 두 가지 타입이 있다. TMC-77형은 탱크 내 약 70톤의 분뇨를 저장, 1일 최대 10톤을

투입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YMC-66형은 약 58톤의 분뇨를 저장, 1일 최대 7톤을 투입 및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로터식계분처리설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1/10 수준의 공간만 있으면 설치하고 기계를 작동할 수 있어 협소한 농장에서의 활용가치가

표 1. 업체별 동물사체처리기 비교 표

구분	A사	B사	(주)와이엠아이	(주)와이엠아이 장점
처리 방식	분쇄, 발효 건조방식	분쇄, 발효 건조방식	분쇄, 발효 건조방식	종계, 산란계 육계 통체로 투입 분쇄. 분쇄물이 자동으로 발효조로 유입 후 발효 건조. 3중 스텐레스, 전자동전기, 다기능 · 다목적
용량	100, 150L	150L	450L	
분쇄능력	육계	육계	산란계, 종계, 육계	
처리시간	48시간	40시간	13시간	
전기전자	10kw, 자동방식	12kw, 반자동	5.5kw, 자동	
발효건방식	하단부 가열방식	하단부 가열방식	하단부 · 상단부 입체적 가열방식	
다목적 (기능)	동물사체용	동물사체용	동물사체, 오파란처리, 생균제발효, 사료배합기 (다목적 사용)	



▲ 계분처리기

높다. 비용면에서도 '바이오 콤파스트'의 구입설치비는 로터리 교반기의 80% 수준에 불과하며 고열을 발생시키는 장비이지만 열손실을 최소화 한 3중 구조로 설계된 덕분에 단열성이 우수한 로터리 교반기와 비슷한 수준인 월 45kw의 전력 소비만으로 원활한 작동이 가능하다. 톱밥 등 부자재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합리적인 경제 성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계분이 밀폐된 탱크로 바로 이동되어 외부의 노출이 적어 악취에 대한 걱정을 줄여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대기 중의 유해 미생물과의 접촉확률도 낮아 보다 효율적이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 농가 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6개월에서 1년 가까 운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바이오 콤파스트' 만의 원리로 기기작동 7일차가 되면 가장 먼저 투입된 계분이 양질의 퇴비로 변화되어 탱크 바닥의 배출구를 통해 빠져나온다.

신제품 신기술로 농장경영에 일익 담당

(주)와이엠아이는 제품수명기간 동안 연 2회



▲ 계분처리기 설치 모습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생산물 제조 및 관리책임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꾸준한 연구개발로 신제품과 신기술을 생각한다. 이것은 (주)와이엠아이의 경영이념인 '고객 서비스 만족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에 안주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의 축산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하는지를 알고 미리미리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표이사는 "각 농장마다 기계설치 후 사후관리를 걱정한다. 우리 와이엠아이는 연간 2회 정기 A/S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품의 평균 수명이 20~25년 정도 인데 제품구매 연차에 상관없이 A/S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축산환경은 녹로치 않다.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위험요소를 줄이고 농장경영환경을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와이엠아이는 '친환경 녹색 축산'과 '고객 서비스 만족'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업계 최고가 되기 위해 나날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성장과 환경보호, 자연순환축산 실현을 위해 꾸준히 고민하는 (주)와이엠아의 역할이 기대된다.

최재 | 최인환 기자
enani85@naver.com

